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 나와라”

18일 지부 2차 총파업 대회 ... 한온시스템 일방 매각 규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18일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2차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총파업대회 참가자들은 한온시스템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의 3자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를 강력히 규탄했다.

권현구 대전충북지부장은 “노동자들 땀으로 한온시스템을 일궈왔다. 노조와 합의 없는 매각은 명백한 단협 위반이며 합의사항 위반이다”라며 한온시스템 일방적인 매각 추진을 비판했다.

권 지부장은 이 같은 노조 무시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노조 무력화 공세에 발맞춰 자본도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권과 자본의 노조 무력화, 노동탄압에 맞서 금속노조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재원 한온시스템대전지회장은 “빗속을 뚫고 판교 한국타이어 본사까지 달려와 총파업대회 함께 해준 동지들에게 감사하다. 한온시스템 대전/평택 대표지회장으로서 매각 투쟁 반드시 승리해서 금속노조에 길이 남을 투쟁사를 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온시스템 매각 투쟁은 한온시스템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이 파업하고 대회에 참석한 전진우 한온시스템대전사내하청지회장은 한온시스템 매각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온시스템은 현재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다. 한앤컴퍼니는 대주주로 있는 동안 배당금으로만 6,3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노조 동의 없이 지분의 절반을 한국타이어에 1조 3,600억 원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지회는 3자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타이어가 거부하고 있다.

대전충북지부는 2차 총파업대회를 통해 “노조와 3자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자본이 원하는 대로 매각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타이어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대회 참가자들은 많은 사업장이 매각, 구조조정, 단협 개약, 복수노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를 공격하는 상황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 무력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가장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했다.



부당징계·교섭 거부가 노사 상생?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 규탄 기자회견 열어 ... “노조 탄압 중단하라”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표방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에서 사측의 지회장 부당 징계와 일방적인 교섭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지회장 부당 징계 및 교섭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이 보장한 의자 설치조차 징계하는 실정”이라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 스스로 노사 상생을 걷어챘다”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은 사측으로부터 정직 1개월 통

보를 받았다. 사측은 김진태 지회장이 부서장의 라인 작업장 간이 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 지회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김진태 지회장은 “분명히 의자 설치가 법에 명시돼 있고 2시간 근무·10분 휴식인데 현장과 휴게실이 가깝지도 않다”라며 “내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간이의자조차 허용하지 않는 관리자에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지회장 징계를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판단한다. 사측의 징계 회부 당시 김진태 지회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위원장으로서 교섭권 위임 등으로 금속노조와 사

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금속노조 지회 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징계 위협으로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으려 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측이 노사 상생을 외치지만 말뿐”이라며 “정당한 현장 활동을 부당 징계로 탄압하고 몇 달째 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동조합 탄압에 열 올리고 있다”라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부당징계 철회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 탄압 중단 ▲금속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즉각 개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장 투쟁, 법적 대응 등을 전개하겠다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법원, 에버랜드 셔틀버스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삼성물산이 에버랜드 셔틀버스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에 따르면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가 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었다. 법원이 삼성물산(에버랜드)과 씨에스모터스 노동자 간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한 것.

씨에스모터스 노동자들은 삼성에버랜드에서 셔틀버스, 사파리버스, 수륙양용차 같은 특수버스 운행 업무를 한다. 씨에스모터스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에버랜드 차량 수송부에서 분사됐다. 에버랜드는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했고, 현재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에 속해 있다. 삼성지회는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관심 있는 씨에스모터스 노동자들을 모아 이번 판결 내용을 알리고 에버랜드 불법파견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조장희 지회장은 “사측으로부터 아직은 연락이 없다”라며 “사측은 항소하지 말고 노동조합과 더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